

어린이 책꽂이



▲올가엔 좀 애매한=습지생태보고서로 크게 주목받은 만화작가 최규석이 청소년들을 위해 낸 단행본 만화. 만화학과 입시 학생들의 꿈과 좌절을 그리며 우울한 시대의 현실을 얘기한다. (사계절·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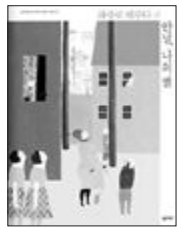
▲오렌지별에서 온 아이=류미원의 새 장편동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떠나 자신이 의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소년 '티립스'를 만나며 겪게 되는 모험 이야기다. 외계 존재를 등장시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창비·9000원)



▲엄마 말 안 들으면=몸길이 30m에 달하는 흰긴수염고래를 애완동물로 키우게 된 아이. 유쾌한 반전이 숨어있는 엉뚱하고 환상적인 그림책. 흰긴수염고래와 아이들이 나누는 우정과 일상이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다산기획·1만1000원)



▲한반도의 매머드=수만 년 전 한반도 북부의 주인공을 만나다. 아기 매머드 맘마가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어른 매머드로 성장하는 과정이 담겼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 한다. (킨더주니어·9천800원)



▲안녕, 나의 별=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을 초등생용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물레 별을 따 집으로 가져온 소년. 하지만 원하던 별을 소유하게 된 그 순간부터 소년의 일상은 불안에 휩싸여 엉망이 된다. (살림어린이·1만원)



▲투명인간이 되다=주인공 토니노도 공부를 하지도 하지 않은 날, 선생님께 혼내고 싶지 않아 투명인간이 되길 꿈꾼다. 놀랍게도 그 순간 꿈이 현실로 이뤄지고, 신이 난 토니노는 친구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물통도 없지르면서 장난을 친다. (파랑새·1만2000원)



▲가난한 화가=20세기에 배출된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 중 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는 잔니 로다리의 작품. 가난한 화가가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상처 난 손에서 찾은 한 방울의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가 된다는 이야기. (파랑새·1만2000원)

▲꼬마 저승사자 마꼬=검쟁이이다 말쑥쟁이인 꼬마 저승사자 마꼬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치는 판타지 동화다. 마꼬는 저승의 백년 묵은 숙제인 백두산 호랑이를 데리러 간다. 가족의 소중함과 우정, 정의의 일깨운다. (미래아이·9000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욕망들

망루

주원규 지음



지난 1931년 평양 고문실 공장 여자 노동자 강주룡의 울말대 시위는 국내 첫 고공 시위로 기록돼 있다.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르는 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등지를 뒀던 적을 쫓기 위해 한 마리 새가 높은 곳에 올라 올 부딪듯, 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광주일보문학상' 수상 작가 주원규씨가 신간 장편소설 '망루'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또 다른 인간의 고통을 보여준다. 소설은 지난해 1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저자는 철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망루에 올라간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누가 그들을 외로운 망루로 올려보냈는지를 추적한다. 주인공 민우는 대형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문을 대신 작성해 주며, 목사의 딸과 결혼을 앞둔 교육 전도사다. 이 교회는 대형 소꿉

물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이 과정에 철거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철거민연합회'가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게 된다. 민우는 철거민을 돕는 사람들 중 민우의 고등학교 동창인 윤서를 발견하고, 조금씩 철거민들의 딱한 사정에 눈을 뜨게 된다. 또 달아나는 용역회사 직원을 붙잡아 복수를 하려하는 윤서의 폭력성도 확인한다.

경찰의 진압이 진행되면서 망루는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곳이 된다. 윤서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자신을 만류하는 다른 동료들을 살해하게 되고, 망루는 사고로 불타 수많은 사람이 숨진다. 시간이 지난 뒤 소꿉물 기성 종교의 사세 확장과 부자 세습, 황포, 철거민들의 실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또 망루에 오른 이들은 철거민이 아니라 욕망과 구원, 권력과 저항, 분노와 용서가 뒤범벅된 우리를 자신이었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저자는 이 작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승자와 패자, 가진자와 잃은 자.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도식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승자일까요. 이런 구별을 끊임없이 책동하는 이들이 승자일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나 충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주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갈'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열의인종 잔혹사'와 장편소설 '천하무적 불량야구단' '무력소년 생존기', 평론집 '성역과 바벨' '민중도 때론 약할 수 있다'를 냈다.

〈문학의문학·1만1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런던 미술관 소장 작품들 소개

런던 미술관 산책

전원경 지음



런던 미술관의 걸작들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예술 전문 작가 전원경씨가 런던의 그림같은 미술관들을 소개한 '런던 미술관 산책'을 냈다.

런던의 미술관들을 10여 년간 관찰해온 저자가 자신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은 그림을 엄선하여 소개한다. 단순히 그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사연을 읽어내고 있다. 영국 런던의 미술관에 있는 그림 중 특별한 사연을 지녔거나 영국 역사와 영국인들의 일상, 유럽의 변화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그림들을 설명한다.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등 잘 알려진 유명한 미술관 외에도 에두아르 마네의 '폴리베르제르의 술집' 등 인상파 걸작들이 즐비한 코플드 갤러리 등을 소개한다.

또 영국 위인들이나 왕족들의 초상화나 사진을 소장한 국립 초상화미술관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관의 소장작품들에 얽힌 사연들이 소개된다.

마네의 술집 그림, 모네의 템즈강 풍경화 등 개개 작품의 내밀한 사연이 친절하게 소개돼 있다.

미술관의 대표 작품을 통해 당시의 미술사와 화가에 대한 소개 등 정보가 풍부하다. 또 화집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삽화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시공아트·1만6000원)

〈시공아트·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국·유럽 역사가에 대한 평전

역사가들

역사비평 편집위 엮음



E. H. 카 만큼 한국인에게 친숙한 역사가도 흔치 않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그의 말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는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우리는 E. H. 카를 역사 이론가로서 알기는 하지만 정작 그의 전문 분야가 러시아혁명사와 소련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책에 소개된 E. H. 카는 33년에 걸쳐 14권의 '소련사'를 완성한 걸출한 소련사가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소련사'가 혁명적 지식인의 투철한 사명 의식에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학문적 관심에서 집필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을 때 역사가로서 그가 지닌 열정에 탄복하게 된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가에는 안드레 군더 프랑크도 있다. 그의 종속이론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1980년대 한국사 회구성체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그는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근세 이전부터 세계체제가 존재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역사학 전문 학술지 '역사비평' 편집위원회가 엮은 '역사가들'은 이 밖에 '미국 민중사'를 쓴 하워드 진, 유럽통합사를 연구한 발터 립켄스, 독일 분단사를 쓴 크리스토프 클레스만 등 역사가 12명의 짧은 평전을 모아 펴낸 책이다. (역사비평사·1만5000원)

〈역사비평사·1만5000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108일간 모터사이클 횡단이야기

이완 맥그리거의 레알 바이크

이완·찰리 공저



'트레인 스포팅', '물랑루즈'에 출연한 영화 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동료배우 찰리 부어맨과 함께 떠난 여행의 기록을 담은 '이완 맥그리거의 레알 바이크'가 나왔다.

한번도 비포장 도로를 달려본 적이 없는 이완 맥그리거는 BMW 모터사이클을 타고 108일간 대륙을 횡단했다. '바이커 광'인 두 사람은 런던을 시작으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체코 등 유럽을 거쳐 몽고, 캐나다 그리고 뉴욕까지 12개 국가를 가로지른다.

이완과 찰리가 번갈아 쓴 책에는 출발이 주는 설렘부터 여행지 곳곳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길고 긴 여정에서 느꼈던 감정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에서 캠핑을 하며 사색의 시간을 갖고, 러시아에서는 옛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지나며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되새겨 본다.

또 몽골에서 극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완은 평생 유니세프 일을 돕기로 결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내살 된 몽골 여자 아이를 입양했다.

이 여행기는 TV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레·1만3800원)

〈이레·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OLFZON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golf course and text: 'OPEN GOLFZON 광주최고 시설 스크린 골프장' and '자이언트 골프존'.